

2040년, 광주의 미래를 그린다

‘디딤돌 집담회’

2040년 광주의 미래를 함께 그리기 위해 광주지역 시민사회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미래 광주의 비전과 방향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7월 21일(화)
오후 3시 ~ 5시 30분

광주, 도시와 교통 계획에 대하여
- 2030 도시기본계획과 교통 토크아보기
* 박경환 전남대 지리교육과 교수
* 송예나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7월 29일(수)
오후 3시 ~ 5시 30분

광주, 살고, 쉬고, 보이는 것에 대해
- 광주의 주택계획과 공원녹지, 경관계획 살펴보기
* 나강열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

8월 4일(화)
오후 3시 ~ 5시 30분

시민사회 좌담회
광주의 미래를 함께 그린다

장소 :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회의실

문의 :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062-613-41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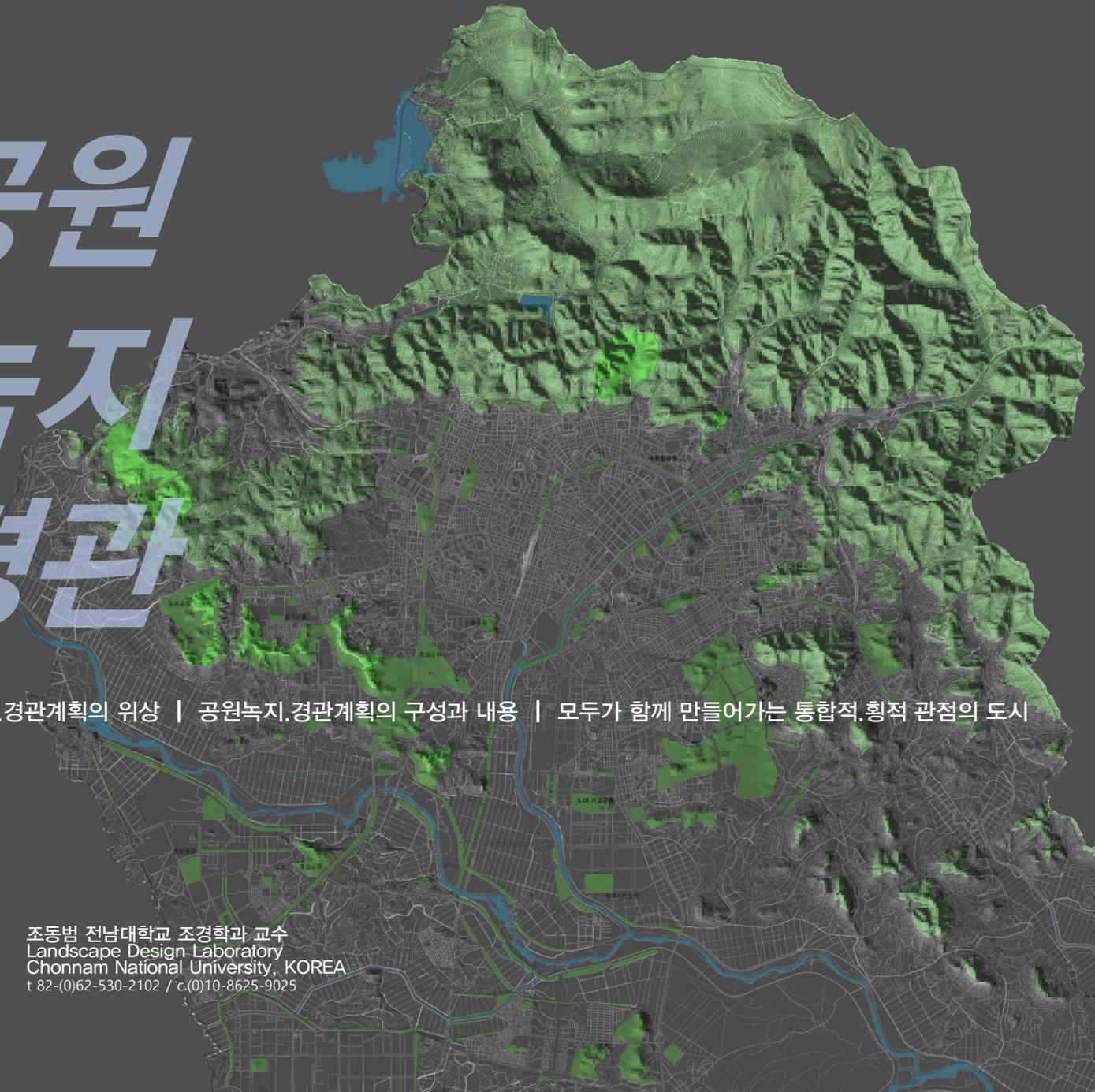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20명 이내로 참석인원을 제한하기에, 사전 신청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 참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영상 촬영을 합니다.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추후 정리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공원 녹지 경관

공원녹지, 경관계획의 위상 | 공원녹지, 경관계획의 구성과 내용 |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적, 횡적 관점의 도시

ID1

조동범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Landscape Design Laborato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t 82-(0)62-530-2102 / c.(0)10-8625-9025



도시기본계획 속에서의 공원녹지.경관계획의 위상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의 계획목적 중 첫 번째 항목이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이었다. 1967년 이후 6차례의 도시기본계획에서 한번도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이었기에 그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고 그 맥락에서 도시계획과 부문계획과의 위상 또한 함께 이야기될 수 있다.

도시계획에서 시민참여가 점차 강조되게 된 배경에는 전반적인 사회발달의 흐름도 있지만 도시를 만드는 계획사고의 진전이 무엇보다 크게 부각된다. 길지 않은 도시계획의 역사에서 볼 때 도시를 만들고 관리하는 일은 사회의 통제 수단이었으며 근대 서구에서 도시를 자본적으로 재단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계획방식의 변화는 도시가 더 이상 그러한 관점에서 보거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이 시민을 통제의 수단이나 공간을 자본추구의 대상으로만 취급하였다고 할 수 없고(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시민참여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근본에서부터 도시계획의 문제를 진단하고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구성과 함께 수단화된 시민참여과정 자체에서도 문제는 드러난다.



제3장 계획지표 설정	110
1. 인구 지표	110
2. 주요 계획지표	119
제4장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120
1. 공간구조	120
2. 생활권 설정	134
제3편 부문별 계획	
제1장 토지이용	151
1. 계획목적 및 계획과제	151
2. 현황과 변화과제	152
3. 실천전략	162
4.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수립	164
5. 토지이용계획	171
제2장 교통기반시설	186
1. 시민이 만드는 계획목적 및 계획과제	186
2. 현황과 변화과제	189
3. 실천계획	202
제3장 도심 및 주거환경	224
1. 시민이 만든 계획목적 및 계획과제	224
2. 현황과 변화과제	226
3. 실천계획	230
제4장 문화	243
1. 시민이 만든 계획목적 및 계획과제	243
2. 현황과 변화과제	245
3. 실천계획	250



1.1. 계획의 목적

가.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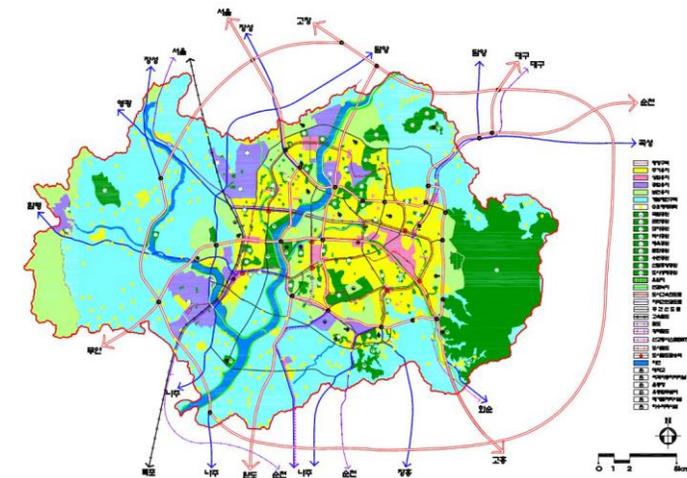
-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지역의 구성원 간 이해관계의 적극적 중재 조정 등을 통한 광주-전남 최초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
- 시민참여단 계획자문단 운영을 통해 도출된 2030년 광주광역시 미래상 및 계획과제 등 합리적인 정책방안 마련

나. 더불어 행복한 도시 도대 마련을 위한 탄력적인 도시계획 수립

-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계획 수립으로 더불어 행복한 도시 도대 마련
- 계획이슈를 정책목표학적으로 만든,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계획 수립
-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관리방안 마련

다. 인접도시와의 기능적 연계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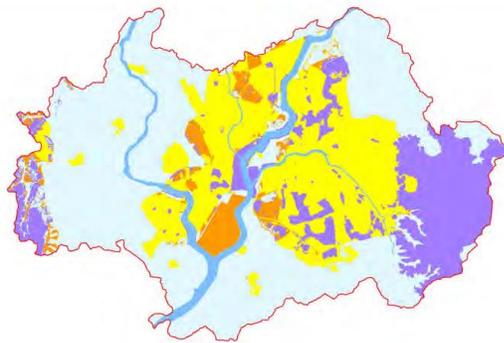
- 광주-전남 중심도시로서 도시기능 강화를 위해 광주-전남공동혁신 도시와 연계한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도시기능 재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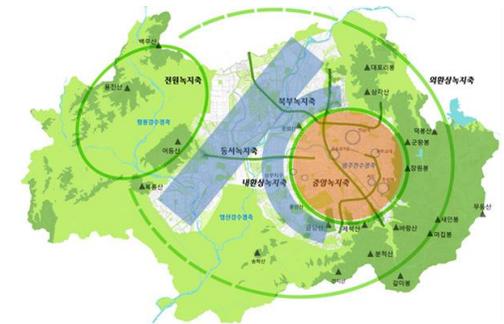
도시기본계획 속에서의 공원녹지.경관계획의 위상

인구지표
 도시공간구조설정
 생활권설정
 개발가능지분석
 관련계획

공간	시스템	생활
토지이용	경관과 미관	사회복지
교통기반시설	방재 및 안전	교육
도심 및 주거환경	경제.산업	문화
공원.녹지	물류	환경보전과 관리
공공시설	정보통신	보건의료



■ 기 개발지
■ 개발가능지
■ 개발억제지
■ 개발불가능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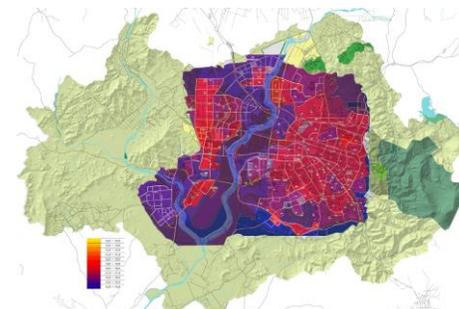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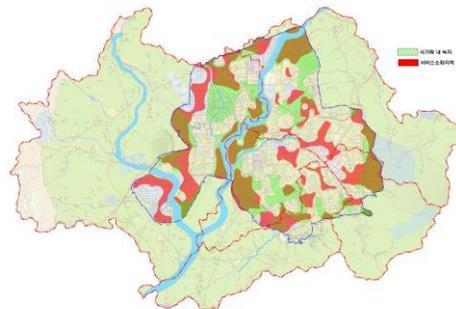


2030 도시기본계획의 **공원녹지.경관계획의 구성과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공원녹지의 정의와 종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법규상의 공원이나 녹지 뿐만 아니라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모든 토지 및 수면 즉, 포장된 도로와 광장, 하천 등과 녹화된 공간 •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1) 도시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및 저수지 2) 나무·잔디·꽃·지피식물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3)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생활권공원, 주제공원) - 용도지역상의 녹지(자연녹지, 생산녹지)와 시설녹지(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별 조치법) - 하천(하천법) - 농지(농지법) - 산지(산지관리법) - 가로수(도로법) - 공개공지 등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시설의 유형과 종류</p>	<p style="text-align: center;">교통시설</p>	<p>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 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p>
	<p style="text-align: center;">공간시설</p>	<p>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공공공지</p>
	<p style="text-align: center;">유통 및 공급시설</p>	<p>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p>
	<p style="text-align: center;">공공문화복지시설</p>	<p>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p>
	<p style="text-align: center;">방재시설</p>	<p>하천, 우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p>
	<p style="text-align: center;">보건위생시설</p>	<p>화장장, 공동묘지, 도축장, 장례식장, 종합 의료시설</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기초시설</p>	<p>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p>

공원녹지의 현황과 문제점

문제점	세부내용
장기미집행 공원 확보 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에 따라 공원면적의 전반적인 축소와 시민 1인당 공원면적 공급 저하 예상됨 • 민간공원조성에 따른 주거개발과 공원의 환경적 역할(이산화탄소 흡수, 도심열섬완화, 바람길 형성, 미세먼지 차단 등)과 상충 • 대형 미조성공원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해제되거나 축소될 경우 공공복지와 의료,건강 차원에서 위협적인 요인이 됨 • 북구와 서구의 경우 법적기준을 상회하거나 근접하지만 각각 47%와 68%에 달하는 미조성공원이 대형공원에 해당되어 전체 도시기반으로서의 관점이 요구됨
공원녹지의 패취화와 양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공원의 주 확보수단이 도시개발에 의한 조성형 공원에 의존하면서 도시인프라 역할을 하기에는 양적으로 미흡 • 고층 주거단지 경관계획과 지구 내 공원녹지 배치계획의 초기단계 연계가 부족하여 공원녹지의 경관적 가치를 발휘하지 못함 • 중로 이상의 도로와 고층아파트 개발에 의해 대형공원(중앙, 중외, 일곡공원 등)의 녹지네트워크와 자연경관이 차단됨 •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의 시가화로 녹지네트워크 기반이 점차 파편화되는 반면 시가지 주변 보존녹지 생태자연도는 상승하는 양극화 심화
공원녹지 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공원면적은 6.09㎡로 법적 최소기준 6.0㎡를 넘었지만, 동구 2.41㎡, 서구 4.59㎡, 남구 3.69㎡, 북구 9.93㎡, 광산구 5.2㎡로 자치구간 차이가 큼 • 공원의 법적 설치기준(근린공원 500m, 어린이공원 250m)에 의할 때 공원서비스 수준에서 신안, 중흥, 지산, 광천, 임동에서 소외지역이 나타나며 하남, 평동, 첨단, 송암공단 등 공업지역에서는 광범위한 분포를 보임
도시 정책 속의 공원녹지의 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개발, 도로 등 다른 도시기반시설에 비해 공원녹지 관련 정책 및 예산 우선순위가 낮고 자치구별 공원관리예산이 적고 운영프로그램 지원이 부족함 • 광주광역시 자체적인 공원녹지 정책추진력이 낮고 국비지원사업에 의존하는 편이며, 생활밀착형 녹지, 공공정원 시책은 소홀히 취급됨 • 근린공원 관리체계가 시와 구의 행정권한으로 구분되어 민원에 따라 무계획적으로 시설설치가 반복하며 체계적 공원관리 매뉴얼이 부족
공원녹지의 질적 수준과 생물종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정비 및 개발 차원에서 공원우선(park first) 정책과 질적으로 수준 높은 공원을 매개로 한 도시마케팅 전략이 부재함 • 근린공원 기능을 중생태권 규모에서 배분할 필요가 있으며 운동공간 등 시설형 공원과 녹지생태형 공원, 특화,맞춤형 공원 등 주민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수목 수급이나 관리 편의를 위주로 수종선정과 녹화가 이루어져 식물 다양성이 낮고 다층적 숲 구조가 형성되지 못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지 조성방식과 수종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녹지(완충녹지)는 생육기반확보나 폭원상 환경적 기능 뿐 아니라 도시경관 완화를 위한 도시숲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기에 불충분함 • 가로수 성장에 대비한 보도 폭과 투수성 기반이 조성되지 않아 도로 파손이 발생하며, 잎과 열매 등이 많은 수종은 생활상의 불편을 야기함 • 중앙분리대 녹지 조성 비율이 낮아 광폭 도로에 의한 복사열과 도심열섬화를 유발하며 도시가로 경관축을 형성하지 못함 • 지구온난화 및 복사열 증가,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가로수 수종 개발이 요구됨



도시기본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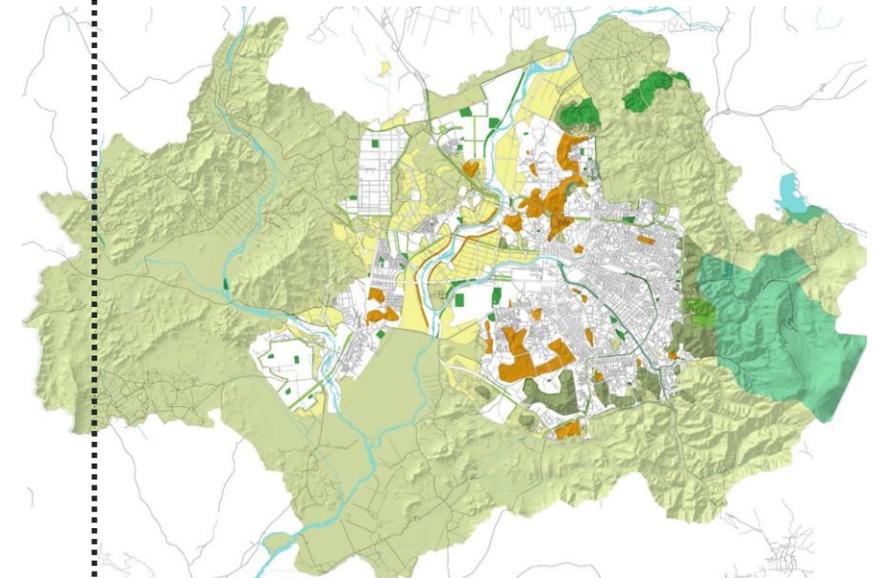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공원, 녹지, 광장 등 공간시설을 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제2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기반시설인 공원, 녹지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제43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미조성시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도시계획시설로서 효력을 상실한다(제48조)
<p>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 는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제10조) 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함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10년이 되는 날 다음날 도시계획시설로서 효력을 상실한다(제17조)

공원조성율과 1인당 확보율의 착시

행정구역면적(501.17km²) 대비 공원확보율 : 13.49%
(자연공원47.65km² 도시공원 19.94km²)

시민 1인당 공원면적(2018년 12월 기준 인구 1,459천명)

- 도시공원 지정면적 기준 : 13.66m²
- 도시공원 조성면적 기준 : 6.00m²
- 자연공원 면적포함 기준 : 46.32m²
- 도시공원 조성율 : 43.89%



전체 행정구역면적 대비 도시공원확보율 3.94%

공원현황(2018.12.31일 기준)

구 분		계		조성		조성중		미조성		
		개소	면적(m ²)	개소	면적(m ²)	개소	면적(m ²)	개소	면적(m ²)	
합 계		637	67,593,038.9	396	564,248.2	31	564,248.2	210	10,623,946.7	
자연공원(무등산국립공원)		1	47,654,000	1	47,654,000	-	-	-	-	
도시 공원	계	636	19,939,038.9	396	8,750,844.0	31	564,248.2	210	10,623,946.7	
	생활권 공원	소계	613	17,140,328.9	381	6,180,477.3	24	378,434.9 2	208	10,581,416.7
		근린공원	124	16,199,205.2	85	5,526,533.8	10	354,668.1	29	10,318,003.3
		어린이공원	403	829,664.1	265	631,248.7	4	6,197.0	134	192,218.4
		소공원	86	111,459.6	31	22,694.8	10	17,569.8	45	71,195.0
	주제 공원	소계	23	2,798,710.0	14	2,570,366.7	7	185,813.3	2	42,530.0
		역사공원	7	253,442.5	5	152,003.5	1	62,980.0	1	38,459.0
		문화공원	4	59,627.0	2	49,557.0	1	5,999.0	1	4,071.0
		묘지공원	3	1,805,190.0	3	1,805,190.0	-	-	-	-
		수변공원	5	575,862.4	3	542,440	2	33,422.4	-	-
		체육공원	3	54,779.1	1	21,176.2	2	33,602.9	-	-
도시농업공원		1	49,809.0	-	-	1	49,809.0	-	-	
시설 녹지	합계	104	3,956,105.20	2,444,713.60		326,754.30		1,184,637.30		
	완충녹지	58	2,731,103.65	2,176,037.70		175,718.20		379,347.75		
	경관녹지	35	1,144,369.80	242,117.50		139,197.10		763,055.20		
	연결녹지	11	80,631.75	26,558.40		11,839.00		42,234.35		

시민참여 환경·녹지 분과의 제안과 실천과제

미래상	계획과제	추진전략	실천계획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숨쉴 수 있는 푸른도시 광주 (시민참여단) 생명과 생태를 존중하 며 시민의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하는 숲, 공원, 정원의 초록도시 (학술연구진)	1. 숲과 공원, 정원의 도시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공간의 구조와 효율성, 시민협력을 바탕으로 공원의 양적 부족 해결 공원과 녹지로 연결되는 생태네트워크 구축 녹지와 수변의 연결성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기반으로 도시숲과 공원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도시 숲 만들기 도시기반시설로서 통합적 관점의 공원녹지 추진 국 공유지를 활용하여 우선공급 추진
	2. 환경과 공생하는 도시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도시개발방식 전환 생물다양성 제고를 목표로 한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공원녹지 보전 정책 	시민복지 기반으로의 공원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도시세대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제공원 다양화 시민이 실감하는 공원녹지 시책과 실천사업 전개 공원복지 개념도입으로 삶의 질제고
	3. 시민생활의 질과 복지에 기여하는 공원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복지개념을 바탕으로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이 제고된 맞춤형공원 자치구별 공원녹지 균형발전 주민주도의 생활녹지계획과 실행사업 지원 공원녹지, 도시정원 관련 일자리 만들기 	공원공동체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만들기과 공원녹지의 결합 주민이 주도하는 공원녹지계획 수립
	4. 도시활력과 문화창조에 기여하는 공원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협력에 의한 공원관리 및 문화 주민협정 녹지조성관리 활성화 정원과 식물에 대한 문화적 수요를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 	공원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와 경제적 의제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거버넌스 모델사업 공원녹지 거점의 사회적 자본 육성 민간 참여형 공원조성사업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 • 세제감면 혜택 등의 다양한 특혜 제공 • 민자 유치 확대 및 민간참여 방법의 다양화

시민참여단 토론(3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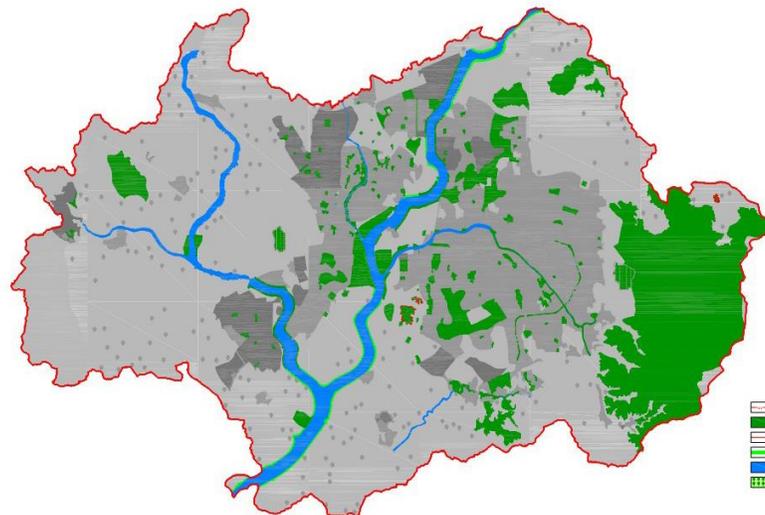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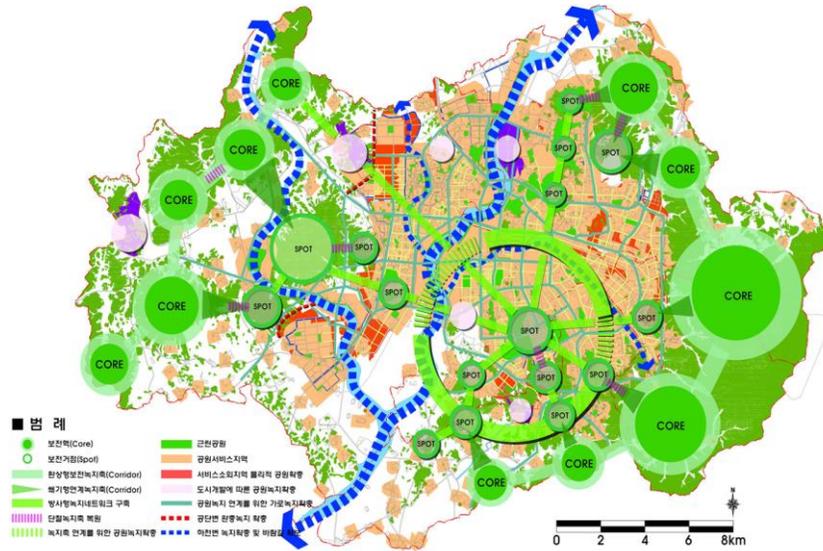
도시미래상 선정



계획지원단(4차)



공원녹지계획도와 계획지표



< 표3-103 > 푸른도시 실현의 인프라가 되는 공원녹지

구분	지표	단위	2015	2020	2025	2030
숲과 물 기반의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구현	도시숲네트워크 지수(생태연결 공원면적)	km	0	1.0	2.0	3.0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원녹지우선정책 실현	저영향개발지수 빛물경원조성면적(개소)	m (개소)	2,000 (5)	3,000 (10)	5,000 (100)	10,000 (200)

* 광주시청사 빛물시설사업(2015) 및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빛물경원 지원사업 등(2009~)

< 표3-104 > 건강도시와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원 복지

구분	지표	단위	2015	2020	2025	2030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생활권 공원복지 서비스 수준 강화	1인당 공원조성면적	m ² /명	6.09	7.0	9.5	12.0

< 표3-105 >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녹지

구분	지표	단위	2015	2020	2025	2030
공원녹지거버넌스 육성	공원이용 프로그램 참가자수	명/1년	1,200	2,500	5,000	10,000
공원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와 경제 의제 발굴	시민가드너수	명	0	100	250	500
시민이 가꾸는 문화정원도시 실현	공공정원 관리면적	m ²	2,000	5,000	10,000	20,000

* 5개 공원에서 이루어진 광주시 공원이용프로그램(2015년) 기준

< 표3-106 >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공원녹지

구분	지표	단위	2015	2020	2025	2030
도시녹화의 질적개선	중앙분리대 가로수 녹지대 길이	km	2.3	5	15	30
다양한 생활방식과 문화적 수요에 대응하는 공원의 특화	도시농업공원(농 업공원지구)수*	개소	2	10	15	20

* 중앙공원내 도시텃밭 및 일곡공원(한새농농업생태공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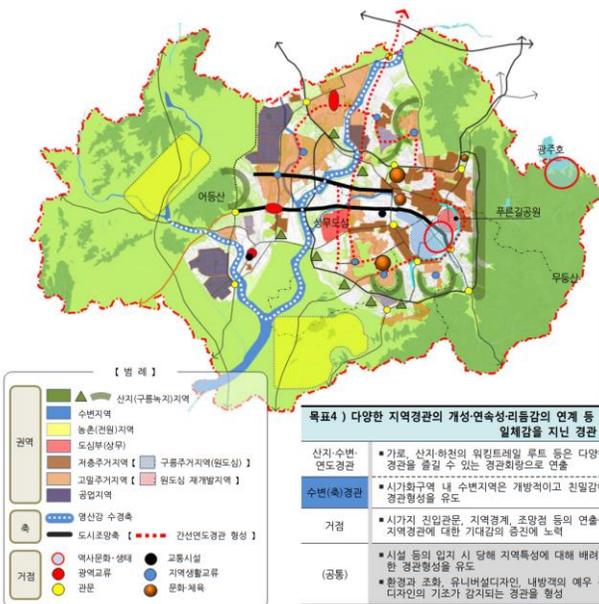
< 표3-107 > 단계별 공원 지표 설정

지표	단위	현황				목표년도			
		2015	2020	2025	2030				
인구수	만명	147.5	155.0	165.0	170.0				
공원지정면적	km ²	19.71	18.6	19.8	20.40				
1인당 공원지정면적	m ² /명	13.36	12.0	12.0	12.0				
공원조성면적	km ²	8.57	11.16	15.84	20.40				
1인당 공원조성면적	m ² /명	6.09	7.0	9.5	12.0				
공원조성률	%	46.1	61.2	80	100				

경관부문 실천계획

현황 및 과제	실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정체성 강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 • 시민참여의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관관리 • 주변과 조화되는 가로경관 및 시가지경관의 관리 • 도시열섬에 대응하는 자연환경 경관의 도시 관리 	1. 산지 수변공간의 보전육성을 통한 매력적인 시가지 . 경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지의 배경을 이루는 산지형 녹지의 경관보전 • 영산강 등 강변의 스카이라인 및 바람길 관리 • 수변공간의 개방감 보전 및 휴식의 장 화
	2. 주택시가지의 생활 편리성과 조화를 이룬 경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밀도 주택지 경관의 관리 • 구릉지 및 일반 저층주택지 경관의 관리
	3. 지역특성을 활용한 경관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부 역사문화경관의 관리 • 공업지 경관의 관리 • 간선도로축 및 연도경관의 관리 • 거점경관 관리(도시철도2호선 역사, 백운광장 교차로, 송정역세권)

2030 광주광역시 경관기본계획(2017)



목표1) 도심성과 교류공간의 특성을 활용한 매력적인 시가지경관 형성	
도심부(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교류거점에 부합하는 랜드마크나 스카이라인을 형성 • 품격과 매력을 지닌 도심 시가지경관을 형성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구관생활 중심지역의 매력을 감지할 수 있는 개성적인 시가지경관을 형성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 내 최유성 강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쾌적한 보행공간을 정비 • 양호한 시야와 도로상에서 쾌적한 전망에 대해 배려한 상단 업무시설 경관을 형성
목표2) 지역개성을 활용한 생활 시가지경관 형성	
고밀주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시가지경관지역의 특성, 매력의 부각 등 경관자원화에 노력
구릉주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서의 조망형태에 대해 배려한 경관을 형성
공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심플인 공공시설이나 민간대형건축물, 노거수 등을 활용한 인상적인 경관을 연출
연도경관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지구의 역사를 전달하는 시설 등을 보전하고 역사에 대해 배려한 경관을 연출
저층주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지구의 역사를 전달하는 시설 등을 보전하고 역사에 대해 배려한 경관을 연출
목표3) 자연환경의 보전과 조망을 중시한 수변·녹지네트워크 모색	
산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지 내외부의 산지경관의 보전 특성과 녹지네트워크화에 노력
농촌(전원)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지 내외부의 농지·자연녹지는 친근한 자연환경, 녹지경관으로 보전·활용에 노력
수변(축)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호소는 친근한 친수공간으로 보전·활용과 주변녹지와 연계한 수변·녹지네트워크를 모색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윤택함을 더해 갈 수 있는 양호한 수변·녹지경관을 형성
목표5) 시민참여에 의한 경관 형성(윤택한 시민생활공간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5의 범위는 기본구상도에 미 표기) ●●●●● 경관계획구역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목표4) 다양한 지역경관의 개성·연속성·리듬감의 연계 등 일체감을 지닌 경관 형성	
산지·수변·연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 산지·하천의 워킹트레일 루트 등은 다양한 지역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경관회랑으로 연출
수변(축)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지·구역 내 수변지역은 개방적이고 친밀감이 드는 경관형성을 유도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지 진입공간, 지역경계, 조망점 등의 연출을 통한 지역경관에 대한 기대감의 증진에 노력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등의 입지 시 당해 지역특성에 대해 배려한 적절한 경관형성을 유도 • 환경과 조화, 유니버설디자인, 내방객의 예우 등 인본 디자인의 기초가 감지되는 경관을 형성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적.횡적 관점의 도시

적어도 20C 후반까지도 경관과 도시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이분법적 관점이 지속되어 왔다. 도시는 고밀도 개발을 가능하게 한 건축기술, 교통기반시설, 자본주의적 개발, 인구과잉, 오염, 다양한 사회적 갈등 등을 포함한 부작용과 얽혀 항상 부정적인 존재로 비춰 온 반면, 환경을 포함해 공간적으로 공원 녹지는 도시화 해악으로부터 피난처와 치유책을 동시에 제공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20세기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뉴어바니즘, 에코 어바니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전통적인 도시디자인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며 경관과 환경, 문화, 역사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20세기 후반, 건축, 예술, 디자인 등 다양한 범위에 걸쳐 나타난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과 탈근대주의적 경향은 1980년대 가속화되어 다원주의적 특징을 보여주며 특히 건축과 도시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 공통점이라면 모더니즘에 의해 부정되었던 인간 감성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역동적인 현대의 도시화 속에서 ‘경관’의 변화와 연속성, 개방성, 그리고 유동성 모두를 포용하는 설계 사고이자 태도이다. 사물과 공간 뿐만 아니라 그 사이를 관통하는 역동적 과정과 매트릭스로 경관을 파악하고 재발견함으로써 도시의 미래 개발과 변화가능성을 포괄하며, 열린 도시를 위한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려 한다.

경관의 전통적 주제인 도시공원은 정태적이고 낭만적인 녹색의 휴식처라는 차원을 넘어서 도시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며 활성화시키는 도시의 기반 시설 역할을 수행하며 공원 녹지에 국한하지 않고 건물과 도로, 오픈스페이스와 인프라스트럭처 등을 모두 포괄하는 도시의 진화와 생성의 장(field)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원녹지나 경관은 종래의 회화적, 양식적 관점에서 벗어나 <도시기반시설>과 <작동하는 시스템>을 제안하는 새로운 모색이 탐색되는 핵심분야이다.

도시계획에는 종.횡의 두가지 접근(관점)이 존재한다 **기능중심의 근대적 계획사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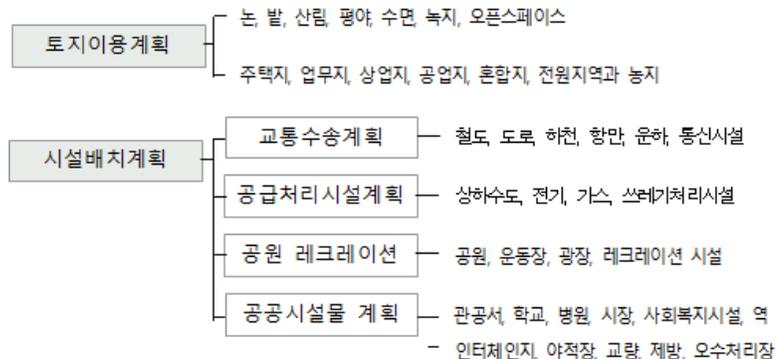
세로지르기 : 도시를 물적 대상(상업,주거 등 토지이용 구분과 도로, 하천, 공원, 상하수도 등)이나 물적 기반시설로 보는 계획자의 관점

가로지르기 : 도시를 생활(경제, 환경, 교육 등) 집합체의 시스템을 보는 생활자의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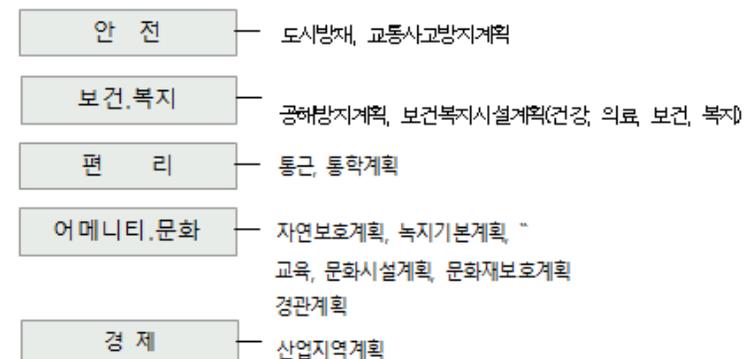
전자는 공급자나 계획자의 관점일 것이며 후자는 생활자나 이용자의 관점일 것이다. 종래의 도시계획은 한결 같이 종적이며 공급자의 시각으로 이루어져 온 편이다. 그러면서 대상과 요소를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조화될 것이라는 종적 관점의 도시계획 전제(예정조화)는 현실의 도시에서는 많은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생활자의 입장에서는 물적 요소만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로지르기 관점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도시계획은 아직도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시설계획을 제외하면 기타 부문계획에 머무는 한계를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참여와 계획목표 배려, 내용이 문제가 아닌 도시계획 자체의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종적인 토지 및 시설계획



횡적인 생활계획



도시기본계획 뿐 아니라 부문별 법정·비법정 계획들은 양과 내용, 아울러 시민참여에 이르기까지 내적으로는 많은 충실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시는 사람과 생태적 환경, 물질·비물질 요소 간의 공간·시간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가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이기에 계획의 미래상 그대로 그려지기는 어렵다. 오히려 계획의 내적 시스템의 완결될수록 도시의 혼란도는 더 심화되기도 한다. 도시기본계획 2030에서는 시민참여계획이 모색되면서 과거와 같은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도시계획의 토지이용과 물질 부문의 계획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공원녹지, 환경, 경관 등의 다른 부문도 나름대로 지위를 갖고 법정계획*이 수립되고는 있지만 도시기본계획과 개별계획 사이에 존재하던 주·종의 위계는 여전히 강요되고 있고, 부문계획들은 예산 유무에 따라 실효성이 좌우되고 있다.

특히 공원녹지 분야는 자신들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별도의 법정계획은 그저 계획을 위한 계획에 그칠 뿐이며 도시개발의 효율과 편의에 부딪치는 비협조적 분야로 취급되기도 한다.

* 공원녹지기본계획(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경관계획(경관법), 환경보전계획(환경정책기본법)

통합성(totality)의 과제

시행착오를 거쳐 획적인 관점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는 여전히 부문 간 차이가 존재하고 과거 경시되어오던 부문에 대한 경시는 여전히 여전하다. 현대 도시에 종합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다. 개별 시설(교통, 상하수도, 에너지)에는 일관된 기능시스템이 존재하고 내부적인 종합성은 있다고 해도 이질적 시설들이 모여 형성하는 실제 공간에서 시스템으로서의 통합은 결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전체로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부각되는데, 단지 개별대상의 계획·설계에 기능적, 경제적 사고법을 보완하는 문제라기 보다는 근본적인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도시계획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개별적인 부문계획들이 더 충실하게 수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계획일 수도 있고, 계획만능주의에 의한 행정 경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계획간 시차나 관리계획 및 재정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도 발생한다. 심지어 부문간 적대적 관계에 놓이도록 방치하기도 한다. 도시계획은 개별적인 공간이나 시설계획이 아니며, 도시를 작동하게 하는 다양한 부품(부문)들을 단순한 조립하는 계획도 아니다.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등장

유토피아 사상에 매몰된 모더니즘 도시계획과 건축의 한계를 직시하면서 “도시는 변화하는 곳이자 그 속의 삶 또한 예측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고한 질서로 도시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는 비판이나, 형태 구성과 재현보다는 공간의 전략적 조직에 비중을 두고 무수히 변화 가능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전략적 층위를 가지는 **사회적 도구로서의 경관**을 제안하는 새로운 어바니즘은 그러한 변화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와 공원녹지경관의 관계를 <녹색 도시공간>이나 <도시미관>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불충분할 뿐 아니라 도시중심의 일방적 사고이다. 도시 안에도 자연이 포함되어 있지만 인간의 손길이 상당히 더해져 자연 그 자체는 아니며, 자연을 대상화하거나 도시의 장식적 수단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시의 확대에 따른 잠식, 지구환경 문제가 진전되고 자연이 점차 희소성을 가지게 되면, 인간사회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로 자연이 새롭게 인식되며 자연이 인간사회에 대한 공헌을 새삼 명시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도시자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보전·관리가 필요하며 도시 자연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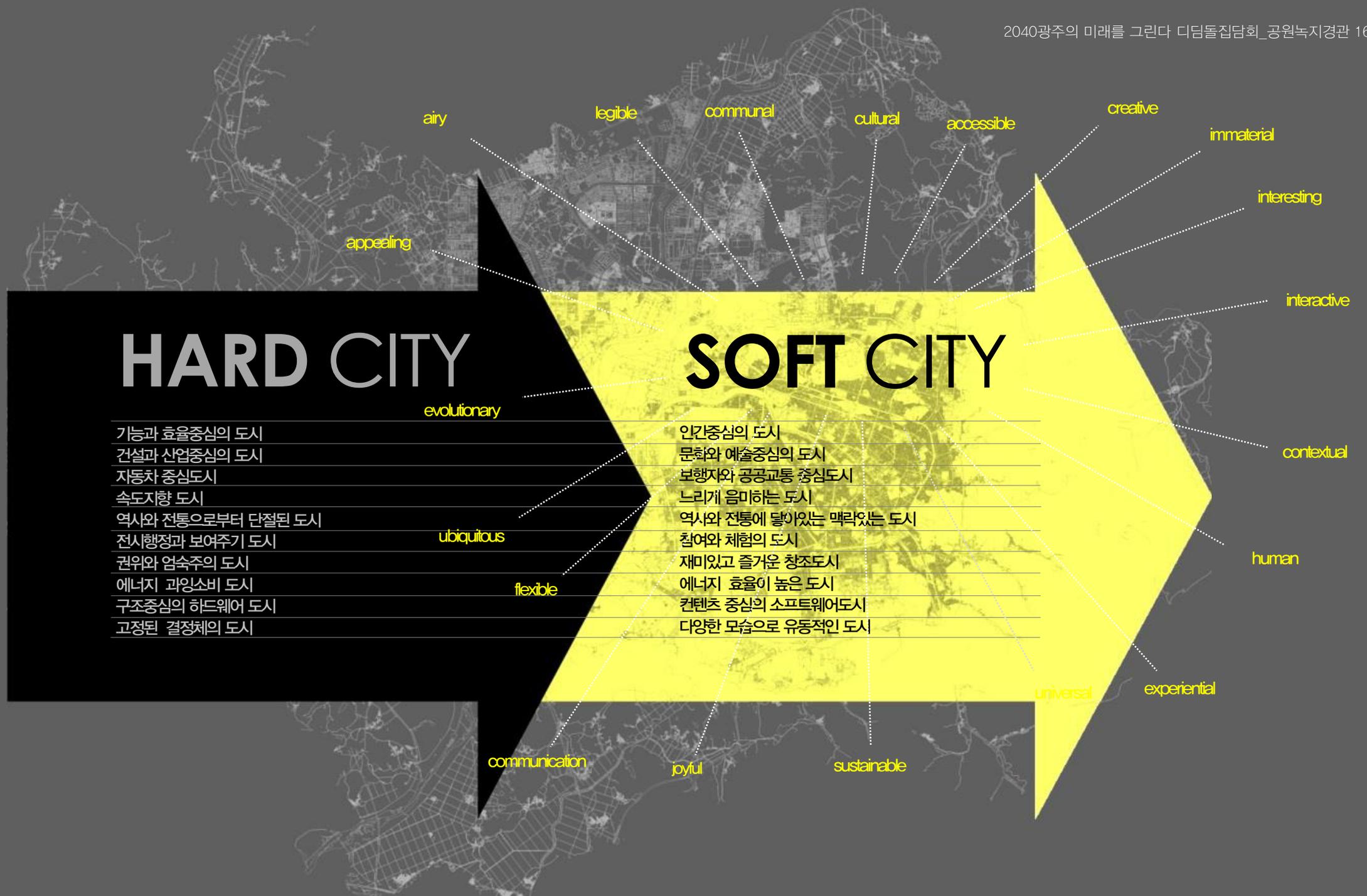
자본으로서의 도시 자연 환경.공원녹지.경관

도시는 주로 인공자본 위주로 도시경제에 대한 공헌을 인정해왔으며, 심지어 인공자본을 위해 자연자본을 파괴하는 개발도 다수 존재했다. 자연자본을 줄여서라도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자연자본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게 인공자본에 투자된다면 무방하다고 본 것이다.

자연도 인간사회에 다양한 가치 있는 재화.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적물이기 때문에 자본의 속성이 성립하며 경제분석이나 관리 시스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간사회에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면에서는 자연의 축적(stock)과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유동(flow)이 인간사회나 경제에 궁극적으로 플러스되는 의의가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에서는 자연자본을 사회적 공동자본의 한 형태로 본다. 사회적 공동자본은 경제활동의 과정에 필요로 하는 자원이지만 사회자본에 귀속되는 자본으로, '분권적 시장경제가 원활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실질적 소득분배를 안정적으로 하는 제도들' 이 해당된다.





HARD CITY

- 가능과 효율중심의 도시
- 건설과 산업중심의 도시
- 자동차 중심도시
- 속도지향 도시
- 역사와 전통으로부터 단절된 도시
- 전시행정과 보여주기 도시
- 권위와 엄숙주의 도시
- 에너지 과잉소비 도시
- 구조중심의 하드웨어 도시
- 고정된 결정체의 도시

SOFT CITY

- 인간중심의 도시
- 문화와 예술중심의 도시
- 보행자와 공공교통 중심도시
- 느리게 음미하는 도시
- 역사와 전통에 닿아있는 매력있는 도시
- 참여와 체험의 도시
- 재미있고 즐거운 창조도시
- 에너지 효율이 높은 도시
- 컨텐츠 중심의 소프트웨어도시
- 다양한 모습으로 유동적인 도시

airy, legible, communal, cultural, accessible, creative, inmaterial, interesting, interactive, contextual, human, experiential, universal, sustainable, joyful, communication, flexible, ubiquitous, evolutionary, appealing